

KRIVET Issue Brief

2019

170호

발행인 나영선 | 발행일 2019년 9월 23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고용(II): OECD국가의 경기변동과 청년노동시장

- OECD국가의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청년층은 비청년층보다 높은 노동시장 변동성, 경기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비청년층과 비교한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의 높은 경기순응성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분석기간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관측됨.
- 현재의 저성장기에서 경기순응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이탈은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 유인 제한, 취업기간 장기화 방지, 직업훈련 단계에서 원활히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청년층의 경기순응적 노동공급 특성이 장소적(spatial)/시간적(temporal)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일관적인(consistent) 특성임을 밝혀, 공급 측면을 자극하는 청년 고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OECD 국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의 단기적(short-run) 경기민감도(cyclical sensitivity)를 분석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따른 청년집단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제시함.
 - 정지운(2019)¹⁾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회복 국면에 이례적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발견하여, 경기변동이 청년층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
 - 보고는 정지운(2019)의 논의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청년층 노동공급의 경기순응성이 국내 노동시장에 국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실임을 확인함.

| 분석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National Accounts

- 1990-2017년(28개년) 기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정보 및 국내총생산액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18개 OECD 국가²⁾의 연간 자료 활용
-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청년층(15~29세)과 비청년층(30~64세)으로 구분하여, 비청년층과 비교하여 청년층이 가지는 특성을 제시

| 각주 |

1) 정지운(2019). 청년고용(I): 경기변동과의 관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Brief. 164호.

| 각주 |

2) 호주,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미국



KRIVET 모바일용

02 청년노동시장의 일반적인 특성

각주

- 3)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 인구/전체인구
- 4) 고용률(%) = 취업자/전체인구
- 5) 변동계수 = 표준편차/표본평균, 측정단위가 같은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노동시장 지표를 비교하므로 표준편차로 변동성을 비교 가능하지만, 청년층이 비청년층에 비하여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표준편차로 변동성을 평가할 경우 청년층의 변동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음. 이에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표준편차를 표본평균으로 표준화한 변동성을 비교함.

주

굵은 글씨는 노동시장 지표 변동계수에서 청년층이 비청년층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OECD statistics.

청년층은 비청년층보다 높은 노동시장 변동성(volatility)을 보임.

- <표 1>은 경제활동참가율(PR)³⁾, 고용률(ER)⁴⁾ 지표에 대하여, 1990~2017년 각 국가별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⁵⁾를 비교
 - 대부분의 국가(18개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청년층이 비청년층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계수($C.V.(PR)$), 고용률의 변동계수($C.V.(ER)$)가 높게 나타남.
 -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청년층의 변동계수가 비청년층보다 높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비청년층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낮은 편이지만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평균적인 수준임.
 -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의 높은 변동성은 청년층이 비청년층보다 단기적인 충격(shock)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표 1> OECD 국가별 청년층-비청년층 노동시장 지표 변동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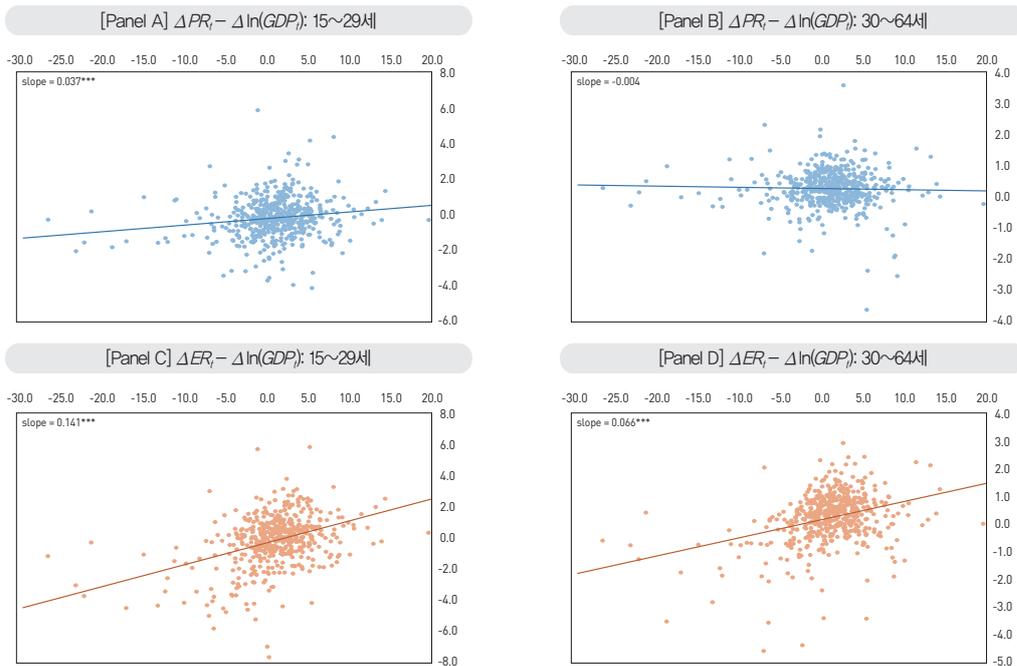
국가명	C.V.(PR _t)			C.V.(ER _t)		
	15-29세 (A)	30-64세 (B)	차이 (A-B)	15-29세 (A)	30-64세 (B)	차이 (A-B)
호주	0.012	0.032	-0.020	0.031	0.044	-0.013
캐나다	0.021	0.021	0.000	0.031	0.033	-0.002
독일	0.040	0.059	-0.019	0.056	0.073	-0.017
덴마크	0.047	0.013	0.034	0.061	0.017	0.044
스페인	0.054	0.095	-0.041	0.167	0.090	0.077
프랑스	0.051	0.020	0.031	0.067	0.025	0.042
영국	0.037	0.020	0.018	0.051	0.032	0.019
그리스	0.043	0.065	-0.021	0.152	0.058	0.094
이탈리아	0.096	0.056	0.040	0.120	0.049	0.071
일본	0.025	0.021	0.004	0.019	0.024	-0.005
한국	0.040	0.013	0.027	0.051	0.019	0.032
네덜란드	0.034	0.072	-0.038	0.048	0.074	-0.026
노르웨이	0.040	0.011	0.029	0.047	0.017	0.030
뉴질랜드	0.025	0.043	-0.018	0.040	0.055	-0.016
포르투갈	0.066	0.041	0.025	0.130	0.031	0.099
스웨덴	0.052	0.019	0.033	0.091	0.029	0.062
터키	0.074	0.050	0.024	0.092	0.062	0.031
미국	0.051	0.013	0.038	0.065	0.023	0.042

03 청년노동시장의 단기적 경기순응성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는 비청년층 노동시장 지표보다 높은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를 가짐.

- [그림 1]은 1990~2017년 기간 18개국 50개 관측치의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변화(ΔPR , ΔER , 세로축, 단위: %p)와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Delta \ln(GDP)$, 가로축, 단위: %)을 좌표평면에 산점도(scatter plot)로 표현
 -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표현한 [Panel A]와 [Panel B]에서, 청년층은 두 지표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활동 참가가 경기순응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비청년층에서는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음.
 - 고용률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표현한 [Panel C]와 [Panel D]에서, 청년층, 비청년층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편, 청년층이 비청년층보다 큰 추세선의 기울기를 보여 더 강한 경기순응적 특성을 보임.

| 주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istics.



[그림 1] OECD 국가의 청년층-비청년층 노동시장 지표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 비청년층과 비교한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의 높은 경기순응성은 국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관측됨.

| 각주 |
 6) Blanchard, O. J., Katz, L. F., Hall, R. E., & Eichengreen, B. (1992). Regional evolu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2(1),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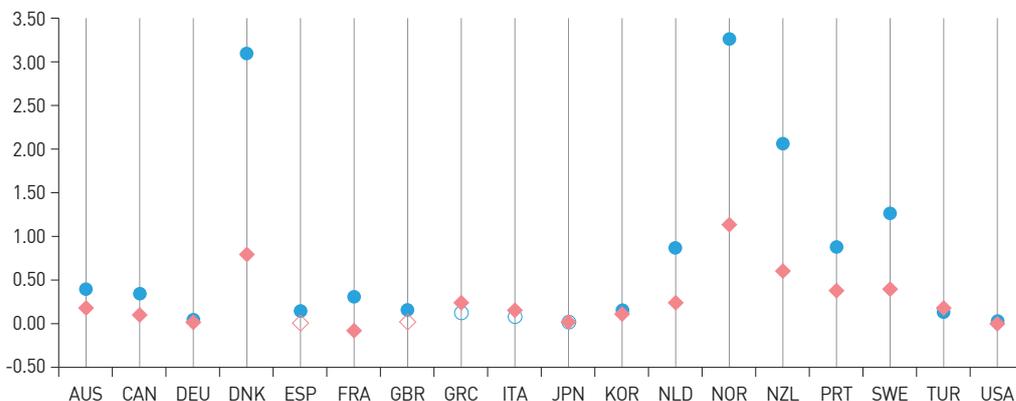
- Blanchard et al.(1992)⁶⁾가 제시한 경기민감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
 - (식 1)은 국가별 부분표본(subsample)을 대상으로, 집단별(청년층, 비청년층) 경기민감도인 $\beta_g(\beta_g > 0$: 경기 순응적, $\beta_g < 0$: 경기역행적)를 추정하고, 이때, g 는 연령대별 집단, t 는 연도를 표현하는 지수, E_t 는 취업자 수, ε_t 은 일반적인 오차항을 각각 의미함.

$$\Delta PR_{g,t} = \alpha + \beta_g \Delta E_t + \varepsilon_t \quad (\text{식 1})$$

- (식 1)에서 추정한 청년층, 비청년층의 경기민감도인 $\hat{\beta}_g$ 를 표현한 [그림 2]에서, 첫째,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의 경기민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보다 커 청년층 노동공급의 경기순응적 특성을 나타내고, 둘째,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터키를 제외한 14개 국가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의 경기민감도가 비청년층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순응적 노동공급의 특성은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
- 즉,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불황) 국면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감소)하고,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짐.



| 주 |
 색칠된 표식은 5%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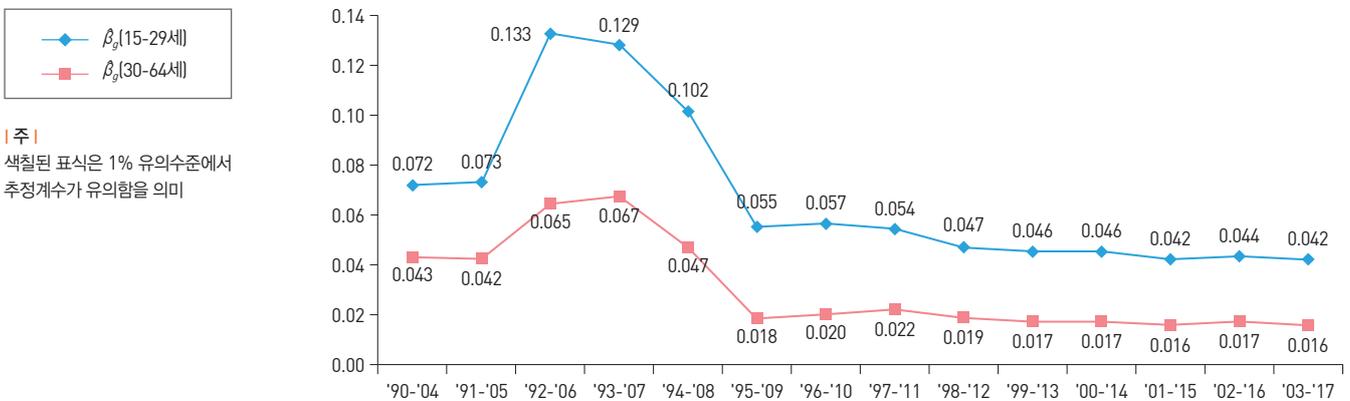
[그림 2] OECD 국가별 청년층-비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의 경기민감도

비청년층에 비해 높은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의 경기순응성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관측됨.

- Blanchard et al.(1992)가 제시한 경기민감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
 - (식 2)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집단별(청년층, 비청년층) 경기민감도인 β_g 를 추정하고, 이때, s 는 국가를 표현하는 지수를 의미하고, 나머지 기호는 (식 1)과 동일

$$\Delta PR_{g,s,t} = \alpha_s + \beta_g \Delta E_{s,t} + \varepsilon_t \quad (\text{식 2})$$

- 표본 기간을 이동하며 회귀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정계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구간이동법(rolling method)을 적용하여 (식 2)를 추정
 - 이동창(rolling window)의 크기를 15년으로 설정한 추정결과의 각 구간별 $\hat{\beta}_g$ 를 표현한 [그림 3]에서, 첫째, 비청년층에 비해 청년층은 경제활동 참가의 경기순응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둘째,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의 경기순응적 특성은 고성장구간에서 저성장구간으로 변화하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음.



주 | 색칠된 표식은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함을 의미

[그림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OECD 국가의 청년층-비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의 경기민감도

04 시사점

- 1990-2017년 기간 OECD 18개 국가 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부터, 청년층의 경기순응적 노동공급 특성은 장소적/시간적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일관적인 특성임을 실증적으로 제시
- 경기순응적 경제활동 참가의 특성에 따라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서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거나 비경제활동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됨
 - 비경제활동상태 청년층이 과도하게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학력 불균형 (고학력 공급-저학력 수요) 현상이 장기화되고, 비경제활동상태 청년층이 소비를 줄이는 경우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공급의 감소가 재화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 유인을 제한하기 위하여, 청년층에 대한 구직수당,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이와 같은 지원금 수령이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함.
 - 취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구직 단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취업의 대안 중 하나인 직업훈련 단계에서 원활히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취업 연계성 제고가 요구되는 한편,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이 다시 비경제활동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 연계의 양적 성과 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도 고려한 직업훈련 관련 정책 설계가 필요함.

설 귀 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